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인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전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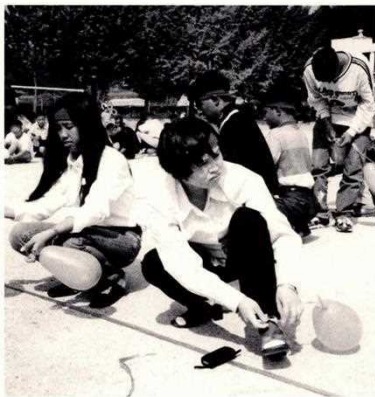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5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정환 편집국장: 조순근

외국인 근로자 전도체육대회 그들의 심령에 복음의 뿌리가 헌신된 교사들에겐 하늘의 위로가



선교위원회 외선부(외국인근로자선교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25일(토)에 외선부에 출석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체들 및 아직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못한 그들의 동료들을 초청하여 산동초등학교와 충현기도원에서 전도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매년 설 연휴나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찾아 고국을 떠나는 이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이들의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해오고 계신다. 물론, 이 일은 헌신된 여러 교사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진행된다.

명절 연휴를 기꺼이 반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외선부 교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도록, 그리고 초창기의 외국인 근로자들 속에 복음이 굳건히 뿌리 박히도록 성도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한편, 25일 체육대회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가진 후 26일(주일)에는 함께 교회로 향할 예정이다.

추석 잘 보내기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추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레임과 기쁨을 주는 추석명절이 다가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추석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성도의 추석 보내기는 사뭇 달라야 하겠다. 먹고 쉬고 노는 일로 그 모든 값진 시간을 써버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추석에 더 위로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중 혼자 있는 자들, 적막한 병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환자들, 부모없는 아이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경제적인 곤궁 속에 있는 자들, 타지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추석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금번 추석은 보다 따뜻한 손길 가운데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추석에는 더욱 마음을 모아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가져야 하겠다. '충현의 만나' 9월 호에는 추석예배모임 참조.

증고물품으로 참여하는 선교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아래의 물품들을 긴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큰 값이 안나가는 증고물품이라도 선교헌전에 가만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는 값비싼 도구가 된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모집물품: 증고 PC 30대

증고 재봉틀 5대

자세한 사항들은 선교위원회(선교관4층, 구내전화 356)로 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그동안 교회 갈릴리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가정들은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파란 꽃장식으로 꾸민다. 주례자식 주변을 시작으로 꽃을 장식했고 또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길 양편의 자라에도 일일이 꽃을 달아 장식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그 많은 꽃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항상 남았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에서는 교회 꽃장식을 맡아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함으로써 각 가정의 꽃장식 부담은 줄이고 결혼식 분위기는 더욱 단정하게 이끌어 가기로 하였다. 결혼식장의 꽃은 주례자식과 강단 양편에만 장식되며,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꽃길은 흰 리본으로 장식하게 된다(사전). 그리고 화환은 세우지 않기로 하였다. 꽃장식을 위한 비용은 15만원 정도이며, 꽃장식은 꽃꽂이 전문 기술을 가진 23명의 권사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미리 숙지하고 알라서 결혼식 당일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선교연구원 LMTC 집중강의

9-11월 중 증 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진행되는 선교연구원 LMTC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집중강의가 오는 쪽 표와 같이 개설된다.

금번 집중강의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과제물을 제출하면 총회 LMTC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수자에게는 본 교회 단기선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랑부

장애인초청전도집회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인 그들"

9월 29일 오후 4시

사랑부에서는 9월 29일(수) 오후 4시 사랑부 예배실에서 성도를 주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갖는다.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함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 앞에서 맑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부서의 지체들과 교회의 각 부서들 간에 사랑의 교분을 통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되는 온통이 임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 가정에 두고 있는 성도들은 이번

일 자	시 간	강 의
9월 29일(수)	21:00-24:00	성경적 선교신학(구역)
10월 13일(수)	21:00-24:00	선교와 언어습득
10월 20일(수)	21:00-24:00	장단기 선교의 탐사역 선교역사
10월 27일(수)	21:00-24:00	세계선교동향 선교동원화 국내 외국인근로자 사역 단기평신도 선교의 시작과 준비
11월 3일(수)	21:00-24:00	비교종교학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여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제3회 작은 사랑 음악회

10월 19일 오후 7시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3교구가 연합하여 준비하는 작은 사랑 전도음악회가 10월 19일(화) 오후 7시에 강남구 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이 음악회는 강남구민들을 초청하여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대와 교구가 연합하여 전도활동을 하면서 성도의 교분을 이루고, 특히 해당 지역 내의 불우 이웃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성도들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교회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김 창 인 목사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강박을 버리라

(이사야 48장 1-8절)

우리가 남보다 낫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유혹을 끊고 권리를 지킵니다. 고난을 참고 절개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외친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는 유다 민족에게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던 원인을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1. 유다 백성

(1) 유다는 자랑스러운 조상을 기졌습니까
① 야곱이 선민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1절)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은 본래 몸도 마음도 약한 자요 간사한 자요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쁜 점이 많았으나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자나깨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 위에서 지식을 권세도 돈도 건강도 다 좋으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한심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은 압제강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요시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승리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시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이후에 모든 면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② 유다가 선민의 조상입니다.
"...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었으니..." (1-2절)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열한번째 아들인 요셉은 제일 잘났고 넷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었으니, 이처럼 선민은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졌습니다.

(2) 선민은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까

① 기록한 성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기록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1-2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기록한 성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이란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게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졌으니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②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간판을 가졌습니다.

"...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2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실패할 걱정이 없습니다. 또 영육에 필요한 것을 보급해 주시는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을 부러워하였습니다.

2. 유다의 강박함

조상이 좋고 이름과 간판이 좋았으나 그 생활 내용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조상이 좋으면 자신도 좋아야 하겠고 간판이 좋으면 생활도 좋아야 하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1) 성실치 아니하였습니까

"... 성실치 아니하고..." (1-2절)
성실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똑같이 옳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실치 않다는 말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모두 다르고 신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 내용은 수고의 맘이 없습니다. 성실치 못한 자의 대표자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마음에 욕심을 품고 예수님을 대로 다녔습니다. 말로는 "진 생님, 안당하시니까?" 하면서도 신생은 별책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에게 팔아 먹고는 입을 맞추는 것으로 양심을 삼아 예수님을 죽여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면 성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욕심 때문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골몰되고 온전한 욕심이 골몰되리라는 대로 죄와 타락하며 되는 대로 삽니다. 신자는 유혹을 거절하고 절개를 지키야 합니다. 영원할 때는 돈, 명예, 권세, 이성으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거절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의를 지킵니다.

(2) 의로움이 없었습니까

"... 의로움이 없었..." (1-2절)
의롭다는 말은 지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개를 지키며 의로운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욕심을 따라 세례의 바람이 부는 대로 죄와 타락하며 되는 대로 삽니다. 신자는 유혹을 거절하고 절개를 지키야 합니다. 영원할 때는 돈, 명예, 권세, 이성으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거절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의를 지킵니다.

(3) 형식은 갖추었는데 실행이 없었습니까
"...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

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1-2절)

유다 백성은 악을 행할 때도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엉망입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했습니다.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권찰, 집사, 장로, 목사가 될 때에 서약을 하였으니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형식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생활은 하나님 실천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혼에게 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겸손히 순종할 줄 모릅니까

"...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4절)
"목의 힘줄이 무쇠"라고 한 것은 겸손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법의 질서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가 목의 힘줄이 무쇠가 되어 머리를 숙일 줄 모릅니다.

(5)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 네 이마는 가리사" (4절)
"이마는 가리사"는 말은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사람에게 미안하고 자기는 장차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걱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남에게 물질과 명예의 손해를 입히고 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면서도 미안한 줄을 모르고 도리어 뻔뻔스럽습니다. 책임을 하나님도 감당하지 않고 권리 행사하려고 하니 이마가 가리사와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고 권리는 양보해야 인격자인데 그렇지 않으면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6) 고집을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가리사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훈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3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적을 많이 보기도 고집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리할 여러 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인간은 고집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흠을 하고 이름과 간판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고집이 잘나서 잘 산다고 고집만 세웁니다.

3. 하나님의 권면

(1) 은밀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노라" (6절)
나인 많은 사람도 이런말을 말을 들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고 덕이 높은 분의 말씀이 더욱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장차 고레스의 실책인 예루살렘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모두 때가 되며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은 새 일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게 하시며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2) 새 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 들었으니 이것을 보라..." (6절)
이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바로 살라고 애를 쓰다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남보다 낫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낫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다 죄의 때를 물은 갈래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천체는 이리하고 구부랄 때에 정성을 쏟는 사람이 성결해집니다. 좋은 간판을 걸고 의식하지 말고 정성을 쏟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유혹을 끊고 권리를 지킵니다. 고난을 참고 절개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송이 꽃에서도 진리를 보게 되고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4. 결론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수록 그것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기이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 성 목사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7: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까지 의도적으로 유대도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올라가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절에 유대에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으셔서 서로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느꼈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유

명절이 되어 다시금 예수님을 찾던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어둡다며 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41).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무리들 속에는 심지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이 어둡다며 수군거렸습니다(요 6:60-61).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를 알고자 했던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다(요 7:5). 어쨌거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방식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자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소경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증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림을 해결받았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심지어 되었던 사람들을조차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고고, 그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실망스런 사람들

의심할 바 없이 이 군중들 무리 속에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이 개신 곳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소적으로 부인하는 이교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시원치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림을 대당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자들도 이런 종류의 무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벧후 3:4). 그리고 여전히 소심한 자제로 예수님의 현존과 능력과 전파되심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희망어린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믿지 못하는 군중들 속에는 믿는 자들 몇 구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있기를 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개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만찬 중 때어지는 떡 속에 계시다고 하고, 또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김의 자리들, 곧 예배와 부흥, 사랑이 배풀어지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 그가 개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계시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단련시키고 성화시키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그의 임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아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개신 곳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 속에, 영광의 중심에, 그리고 보좌에,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증거하는 성경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우리 가까이에서 계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죄인들 가까이에서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만일에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이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과연 어디에 계시니까? 당신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해야 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분을 잊어버리고 무시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환난이 닥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그분은 당신이 불화와 분쟁과 절망과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중심에 계시니까? 반대로 당신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차 있을 때, 그분은 어디에 계시니까? 찬양을 부르는 당신의 입술에 그분이 계시니까? 만일에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모든 것을 중지하십시오. 당신에게 성령께서 당신을 깨우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른다든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당신의 영혼을 먹이시는 산 떡이 되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셔서 그가 어디에 계시는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지존하심을 열망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 것을 통해 그의 위대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름의 위대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를 향한 열망이 없는 곳에서는 순간마다 찾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날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예배도 없게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는 명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잠시 흥분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계시니까? ■

그는 어디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계시니까?

모든 신뢰의 가장 밑바탕에 그가 계시니까?

모든 기쁨의 뿌리에 그가 계시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 영혼 속에 그가 나타나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부주한 삶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분은 돈이나 성공,

명예보다 중요합니까?

그분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보다 우선입니까?

그분은 실로 당신의 구원이 되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는 어디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계시니까? 모든 종류의 신뢰의 가장 밑바탕에 그가 계시니까? 모든 기쁨의 뿌리에 그가 계시니까? 그는 부단한 대화 속에서 당신 가까이에서 계시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 영혼 속에 그가 나타나니까? 그는 당신 앞에 계시니까? 매일 반복되는 부주한 삶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분은 돈이나 성공, 명예보다 중요합니까? 그분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보다 우선입니까? 그분은 실로 당신의 구원이 되니까?

천사와 성경의 증거

성도들은 그가 어디에 계시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뜨겁게 열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자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대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어디에 계시니까

오늘날 ‘그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믿는 성도들의 답변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자비의 자리에 개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읽는 중 그 말씀 속에 개신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회중 가운데, 곧 두세 사람

세계 선교

케냐에서 온 편지

“홍수가 범람할 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케냐 주재 정은희 선교사

사랑하는 천국교의 성도님들께

제가 한국을 떠나 케냐에 온 지 벌써 석달이 다 되어가는군요. 그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얼마 전에 한국의 날씨가 몹시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무척 더운 날씨를 연상하겠지만, 지금 케냐는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의 날씨로 오히려 쌀쌀하여 아침, 저녁으로 좀 두터운 옷을 입어야만 된답니다. 또한 케냐는 고산지대로 다른 나라보다 쌀쌀한 편입니다.

케냐는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인데, 저는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선교훈련 때 배운 LAMP(언어 습득과 훈련)를 적용하여 능숙하면서 스와힐리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현지인과 빠른 시간에 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해서 배운 스와힐리어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들은 아주 좋아하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곤 합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 동역자가 생기고, 그들이 선교사역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실감나 있습니다. 저는 나이로비에서 6개월간 영어를 공부한 뒤에 맛사이 지역에 들어가서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맛사이 부족어를 배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25일까지 맛사이 부족이 사는 레레와 에모토로키와 카치아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에모토로키는 물이 없어서 고양이 새수를 하고,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통의 맛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더 외진 곳이라서 더 순수하고 진짜 맛사이 부족의 문화가 물씬 풍기는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피부병으로 머리가 허형에 일어났고, 눈병으로 눈 주위에 파리가 물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뼈적 마른 모습에 흠뻑 젖어 온듯 뒹뒹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아예 파리 쫓을 생각을 포기하고 파리가 붙어 있는 체로 그대로 있는가 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레리나'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과 모습 속에서 마치 한국의 어린아이를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의 간접으로 맛사이 부족과 하나되는 귀한 결속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때마다 저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임해서서 저를 다스리시고 주강해 주시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시 32:6)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절단고 뒤로 물러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 기도가 열매 맺도록 저는 이곳 케냐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한결은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회와 각 가정과 가시는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한 예배

예배 생각하기

예배 보기? 예배 드리기!

“후세대들에게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 중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봅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예배보자는 말을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배를 본다'는 말은 마치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 말의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을 쓰자고 권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본다'는 말에는 단지 시각적으로 보며 구경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사는 '한자를 보고' 우리는 조식으로 '신문을 본다'. 청춘남녀는 '친을 보고', 주부는 음식의 '간을 보고' 시장을 보러 간다'. 이 모든 '본다'는 말은 보는 대상의 의미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읽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배를 본다'는 말도 사실은 그다지 나쁜 말

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언어가 주는 일상적인 느낌으로 우리를 통제한다. 따라서 '예배를 본다'는 말은 일단 어른들뿐 아니라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는'(구경하는) 삶에 익숙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예배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예배를 단지 구경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 많다.

따라서 어른들은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드리다'(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예배'라는 말 안에 이미 드리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어가 무의식 중에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예배의 경건성을 잘 전해 주기 위해서다. (편집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주요예배·금요집회)

도회, 성경공부, 봉사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은 모두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공격적으로 예배(집회)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거의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다.

과거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했던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장로교·침례교 신교사들은 초기 한국 교회 신자들의 열심에 부합하는 전통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중 집회이다. 영적

모이기를 매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으로 매우 급박한 상태에 있던 한국 교회 초대 교인들은 주일예배 한 번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사도행전의 베로아 인들처럼 자발적으로 모여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했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집회를 갖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평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주요예배와 금요집회의 시작이다.

우리 교회도 이 전통에 따라 주중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요예배 2회와 금요집회 1회를 갖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주중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수는 주일예배에서 모이는 것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때문에 또는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멀어 주중 집회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오락과 여흥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교회 모임을 등한시하는 경향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중에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믿음, 찬양, 기도로 추스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신령을 들을 수 있는 주중 예배와 금요집회 모임에 더욱 힘써 참여하기 바란다. (백태양 전도사)

이단 경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정형민

(목사, 16교구 지도)

몇 주 전 일간신문에 소위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주장하던 한 미혹자의 유훈으로 종말론에 심취한 20여명의 신도들이 가솔소통을 벌여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히고 사회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물의를 일으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가솔 때 따라나섰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100일 기도하길 기다리면 종말이 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며, 종말에 심취된 신도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동굴이나 밀실에서 종말을 지켜보겠다'는 맹목적으로도 광신적인 행태를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신공기사를 읽으면서 7년 전, 이 땅을 그렇게도 어지럽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말론자들은 사회의 전면에서 드러나게 활동을 했지만 요즘은 절조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궤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종말에 관한 이단들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교회를 어지럽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행해지고 미혹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만 심작하게 생각해 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올바른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의 주권인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악한자선 세 해를과 새 땅에 성도들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에게 주신 삶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끄럼 없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혹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불완전한 마음을 붙여넣은 후에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말하여 자신들의 영적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마음의 생각을 지적하고 신유와 능력을 행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사로잡는 그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못하게 하면서 시시히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미혹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바뀌는 하나님에 대한 신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실(벧전 5:5)을 기억하면서 이해할 때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하는 일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계시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단다고 하셨습니다(성경의 완전성). 하나님은 성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셨으며(성경의 명료성), 구원에 있어서도 유일한 하나

나에게 다가왔던 이단들

(사례 1)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줄 아세요"

당동 -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줄 아세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물어본 것이다. 귀찮게 느껴져 교회 다니다고 말을 하자 더더욱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며 말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 냉정하더라는 생각이 들어 나가 보았다. 그들은 계속 알지 못하는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더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리고 얇은 소책자를 주면서 꼭 읽어보라며 여러 가지 설명을 한 후에 물었다. '읽어보아야 하라'는 생각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그것은 여호와 의 종인 책자라며 읽지 말라고 하였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다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 가서 알아보겠다는 말들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갔다.

(사례 2) "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날도 어김없이 나에게 다가가 자꾸 만나게 되는 것은 인연이라며 꼭 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을 걸었다. 교회에 다니다고 말을 하니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며 계속 따라 오며 설명을 했다. 그때 난 인연없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사례 3) "말씀에 대해서 더 교육을 받고 싶으신가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교회를 다니는지를 묻고 말씀에 대해서 더 교육을 받고 싶지 않느냐는 제의를 해 왔다. 그런 말씀 공부를 처음 하게 된 대다수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주일에 자신의 교회로 오라며 연락처를 주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해서 교회 신배에게 조언을 구하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사례 4) "종지 없는 악들을 미리 먹고 싶으시면 저를 꼭 따라오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며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잘못 될 것이며 어떤 것은 위험한 것이라며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돈을 내거나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옷을 입고 걸을 하면 나쁜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순간 너무 불안했었는데 정말로 그대로 하고 내손전등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말들의 신빙성이 없고 그곳에 전리가 없는 것을 깨닫기 나오게 되었다.

이단에 대한
 예방
 주의
 조치
 사항

관련 교회 및 단체	종류	년도	결의내용	주요내용
인식교	4회	1915년	면직예정	인식교가 몰다나고 그 교회로 가면 처치
이동교				
백산교	22회	1933년	이단	각 노회에 통첩하여 주의사항
한문교				
이동교				
나운교, 문정교회	40회	1956년	이단	장로교 신장에 알릴 것을
인식교	41회	1956년	이단	장로교 세우는 것 원고, 장로교 교단 참석 금지
백산교(신도전도원 전 본부)	41회	1956년	이단	비 성경적이며 본 장로교 교리와 신조에 위배됨
동양교회(광주, 평택)	41회	1956년	이단	장로교 세울 수 없고 침례 성사도 금지
한국침례교(전주, 주안교, 주안교회)	65회	1977년	이단(단기 28년)	이단(단기 28년) 발행하는 신문 및 문서 주류 금지
문정교회(전주)	68회	1983년	초자연적	문정교회로 문정교회
문정교회(전주)	69회	1984년	불교종교	문정교회(전주) 신자(신도)들을 불교종교
김기복 배비	76회	1991년	김기복 / 이단 배비 / 이단(단기)	신학적인 연구, 기독교(신학) 기독교(신학)에 발표
예배대	76회	1991년	신학부서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무로신학원(이단)	79회	1994년	불교(단기) 신자(신도)의 내지 이단(단기)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무로신학원(이단)	80회	1994년	신학적으로 일고의 기적(단기)을 행한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할렐루야(이단)(전주)	81회	1995년	종교개혁의 교리 성도의 기도를 올릴 것을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류왕자, 이계원, 유복종	81회	1995년	이단 혹은 이단(단기)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민덕교(전주)	82회	1997년	창세지 또는 창세지는 창세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일출교(전주)	83회	1998년	창세지 또는 창세지는 창세	김기복 교리, 동양의 교제 금지

님의 말씀입니다(구원의 확실성).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씀(마 24:45, 11)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온전하고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반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

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이단에서 회심한 경우

결국 요양소에까지

방희상(전부)

92년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1년 동안의 재수생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지만 시험 날짜가 다가자 그 초조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출석 경험은 학생 시절 몇 개월 정도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실을 잊었기에 배반 끝에 선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합격도 시켜 주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러는 날 학교 정문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JMS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도서관에 모여 스테디하고 성경공부도 하는 모임이라 하며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도 있고 사람들은 좋아보여 선포 순약을 했다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보이는 교회가 일반 교회와 똑같았고 교단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았고 학교 생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JMS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의가 있는 시간이면 리더와 함께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들만의 논리를 통해 교수 정창식이 세립한 예수라고 할 때도 전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에게 교리를 전하였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어머니께서 대뜸 "그가 이단인구나"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로 저의 집안은 촉박해가 되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예 출석을 못하게 하고 저는 도저히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동안 느껴왔던 기쁨의 분위기와 JMS와 함께 있던 시간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마귀가 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는 새벽같이 일어나 담을 넘어 도망다니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출근도 안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저를 미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오기도 차에 타고 앉았은 몸동작이라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이로운 필박으로 다가왔고 JMS에 대한 믿음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도저히 안되었는지 저를 강제로 휴학을 시키고 어느 요양소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는 했지만 JMS와 단절할 수 있었기에 점점 자신과 가정을 바라볼 때였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저를 건지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충현교회에 등록했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경험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자랑거리지는 못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거나 사해를 분석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면 더욱 주님께 감사하느라 드립니다.

지체돌 소식

유지부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유지부 친구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에 예배드린답니다. 주님 주신 심계명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니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일곱번째 날 쉬셨듯이 우리들도 주일에는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려요. 앞으로도 더욱 주일을 글고모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유리 통신원)

유년부

나누고 싶어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요로운 한가위. 여기 한가위보다 더욱 풍요로운 사랑의 마음과 나눔의 자제로 교사들에게 작은 기쁨과 행복을 끼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외국여행 혼자 다녀온 것이 마음에 걸려 일일이 작은 기념품을 준비한 사랑의 마음,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따끈한 육계장을 준비한 감사의 마음, 너무 맛있는 포도를 혼자 먹다 못독 교사를 생각해 냈다며 한 상자 준비해온 섬김의 마음, 참아! 한 가지 더. 평소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이 교사의 영성훈련에 크게 도움하시는 지체 한 분이 혼자 읽기 아쉽다며 온 교사들이 돌려 읽기에 넉넉한 분량의 책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묵화' '회복의 신랑', '요 복 사실'에서는 이 책을 읽고 느낀 독후감과 감명 받은 내용을 서로 나누는 사뭇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로 위하여 도전 개인 신심이 바로 서로 위하여 섬고 한분 읽이 보아야 할 유익한 신앙서적이요,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유년부로 연락 주세요. 받은 사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기도로 새 달 맞이 준비

지난 주일에 초등부 교사 기도회가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바쁘게 움직여 기도원에 도착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교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10월에 있을 행사와 성령, 지각 문제를 놓고 부르셨으며 기도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할 때보다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 정말 은혜스럽고 뜨겁게 기도회를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21세기를 주님과 함께'

10월 23일에 중등 1, 2, 3부 연합으로 개최하는 '시아 찬양의 밤'의 준비위원회는 연 3주째 중등2부 교사실에 모임을 갖고 있다. 중등2부가 주최하는 년간 '시찬'은 '21세기를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춘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손생진 통신원)

청년2부

회장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4기 회장단을 중심으로 8명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2000년말에 청년2부를 섬길 6기 회장단과 임원들의 선거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매우 화요일 저녁에 사랑부 교사실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다. 6기 회장단을 뽑는 총회를 통해서 청년2부 더욱 사랑으로 우리 회가를 기도하며 그동안 안락으로 많은 일들을 해온 청년2부를 섬기기에 합당한 회장, 부회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청년2부를 영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는 청년2부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을 예수님에게서 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랑으로 청년2부를 겸



물·매·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TV 앞에 나갔느냐

노영환(집사, 대학부 교사)

어느 역사 학자가 역대 왕조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보니 150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일정한 모형, 즉 왕업(근반)의 시기, 성장·발전의 시기, 성숙(문화가 꽃피는) 시기, 멸망의 시기 등 4단계를 반복하며, 이러한 모형을 한 왕조뿐이 아니라고 기겁,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교회 개척 시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숨을 아끼고 기도가 발전 성장을 가져왔고,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 '이만하면...' 하고 고만하게 되고, 선 줄로 생각하다 넘어지게 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운 예루살렘교회와,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교회,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들에 보면 개시록의 말씀처럼 사람은 좀 편안하고 낙태하지는 않겠는데 첫사랑이 식어지고 스스로 부유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돈과 권위 어두워져 하나님 없이 별로 필요없게 되어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지 못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도시화 세속화 되었다보니, 대학입시에서 학과 선택이나 졸업 후 직업 선택도 돈을 벌거나 명예와 권력이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세속 사회에서 충헌 대학 부 젊은이들이 직업을 사와 봉사와 복음 전파의 통로로 생각하고, 힘들지만 사회에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직장, 신앙양심을 지킬 수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 한,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 5대 목표를 향하여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얼마 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내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청문회에 선 일이었다. 이번 청문회도 호기 부근 만으로 입은 사람은 교회에 있고 2500만 원짜리 '핑크트' 입은 사람은 선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짓증언 하지 말라는 호봉에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하였다.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니 그날 다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부러워하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심판대에 선 것 같았다.

제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거나(6:24), 요한 일의를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락의 정욕과 이성의 자를 좇아 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였다. 주님 다시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칭찬 받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중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손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선관위원 중의 한 회원 이야기다. 귀한 총회와 회장단, 임원선출을 위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영자 통신원)

장년3부

우리의 영도 영글어가는 계절

소슬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 9월을 맞이하여 곡식이 익어가는데 교사들이 들리는 듯한 요즈음 무더위에 지친 우리들의 영도 영글어갔기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 못한 학생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도록 심방하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출석을 독려하기로 정하였다. 교사들은 많은 반의 장기결석자들의 출석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한 마리의 양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00명 출석 목표는 눈 앞에 두고 더욱 힘들 내어 500명을 돌파하여 주일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인 집회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지친 영혼, 상한 심령들을 시원한 생수로 흘려나오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축복하시라 격려 보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역미숙 통신원)

사랑부

감사드립니다

사랑부는 11살을 맞이하여 1부예배시간에는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부터 분당 앞에서 율동과 함께 찬양을 드린다.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학 생들과 교사들이 일체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부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신앙 생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혜자 통신원)

1교구

은혜의 성전에서 은혜의 잔치 가져

지난 9월 14일, 대가 이르러 영글어야 할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 영성훈련을 가졌다.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열기가 지하 분방에 충만하였다. 장로님의 기도와 무디 아 회원들의 특송, 찬 12:1-5를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교구식구들은 하나님 뜻 찾고, 구하고, 영광돌리는 삶을 다짐하였다. 마음껏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무한한 은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 감사드리며 하나님 생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고 넘치기를 마음 모아 기도를 드렸다. 두 손을 마주잡고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웃음을 나누었고, 공해없는 공기를 흠뻑 마시며 제한된 시간 속에 아쉬움을 남기며 십자가의 군기를 꽃을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임동태 통신원)

9교구

모이면 기도, 흠이저전도

10월 31일은 총력전도주일로 정해놓고 그동안 태신자를 작성하고 기도로 준비해 온 우리 교구는 이제 교구 장로님을 준비위원장으로 구제적인 전도와 초청 계획을 세웠다. 9월에는 기도후원자를 헌신할래고 구역, 지역, 전도회에서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태신자에게 주보, 주간충헌, 만사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제시하였다. 10월에는 태신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 선물 등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며 구역 및 전도회에 초대하고 축조전도와 교구 전체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전도자가 태신자에게 초대장을 발송하고 31일 주일에 교회로 초대하게 된다. 교회와 가리가 먼 관계로 교통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준비위원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어려하지 않아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건지는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옥문 통신원)

각 부서 및 교구 통신원 모임

지난 9월 14일 오후 5시 30분 교육관 301호에서 주간 중헌 통신원 모임이 있었다. 각 부서나 교구의 소속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는 통신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나누고, 끝까지에 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말씀과 합심 기도를 통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향주 통신원)

동산관리비를 받습니다

·관리비: 1기당 3만원

·집수자: 사무국

